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추석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전달

전북도청 방문 성금 2000만원 전해
2009년부터 누적액 2억1000만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우리 고유의 민속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18일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정대영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슬로건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처럼 도내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나눔 문화 확산 소의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구심점이 되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매년 추석과 연말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금일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2억 1000만원이 된다.

또한, 도내 건설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들이 매년 성금을 기탁하여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나서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전반에 기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김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게 추석명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재전장수읍향우회 오팔용 前회장 이웃돕기 성금 기탁

추석을 앞두고 재전장수읍향우회 회장을 지낸 오팔용씨가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18일 장수읍(읍장 문우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주시 경원동에 거주하는 재전장수읍향우회 오팔용 前회장이 장수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10만원을 전달했다.

오씨가 기탁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수읍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오팔용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장수읍에 항상 도움이 되고 싶었고 앞으로도 항상 장수읍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8일 장수읍(읍장 문우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주시 경원동에 거주하는 재전장수읍향우회 오팔용 前회장이 장수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10만원을 전달했다. 오씨가 기탁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수읍 관내 어려운 이웃들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오팔용 씨는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 장수읍에 항상 도움이 되고 싶었고 앞으로도 항상 장수읍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초청강연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와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원)는 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맞아 18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초청강연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기여한 생명사랑 지킴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반약은 없다'의 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의 '오늘 살아있는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8명, 전라북도 28.5명, 정읍시는 35명으로 전국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와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원)는 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맞아 18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초청강연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기여한 생명사랑 지킴이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반약은 없다'의 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의 '오늘 살아있는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8명, 전라북도 28.5명, 정읍시는 35명으로 전국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행안면, 곰소젓갈축제 웃놀이 우승 성금 불우이웃돕기 기탁

부안 행안면 계시마을 유인호이장을 비롯한 4명의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해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시장 상품권 3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18일 제12회 곰소젓갈발효축제 웃놀이에 5명이 참가하여 우승한 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 큰 의미가 있게 했다.

유인호이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면은 기탁 받은 상품권을 관내 생활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 3세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18일 행안면 계시마을 유인호이장을 비롯한 4명의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해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시장 상품권 3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18일 제12회 곰소젓갈발효축제 웃놀이에 5명이 참가하여 우승한 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 큰 의미가 있게 했다. 유인호이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면은 기탁 받은 상품권을 관내 생활하기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 3세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무주양수발전소-무주종합복지관, 한가위 맞이 쌀 100포대 후원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은 18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이승재)와 추석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는 무주종합복지관과 협약을 통해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연 2회 이상 후원품 및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는 무주군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행사로 쌀 500포대를 전달할 계획이며, 이날 무주종합복지관에는 쌀 100포대를 전달하였다.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후원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후원해주신 물품은 무주군 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해 전달할 계획이며, 덕분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 할 것 같다고 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은 무주군내 유일한 복지관으로써 복지관을 내방하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재가 대상자 가정도 두루 살펴서 더불어 행복한 무주군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 운암면 행복보장협의체, 저소득층 가스안전 도모

임실군 운암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광덕, 형태욱)는 지난 17일 가스사용과 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층 10여 세대에게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협의체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스레인지의 가스밸브가 자동 차단되고,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과 가스폭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타이머폭을 설치했다.

혜택을 받은 강모씨(78)는 "예전에 가스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날 뻔했는데, 자동으로 소화되는 가스레인지를 보니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운암면 행복보장협의체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실군 운암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광덕, 형태욱)는 지난 17일 가스사용과 관리에 취약한 저소득 고령층 10여 세대에게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및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협의체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가스레인지의 가스밸브가 자동 차단되고,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과 가스폭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타이머폭을 설치했다. 혜택을 받은 강모씨(78)는 "예전에 가스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날 뻔했는데, 자동으로 소화되는 가스레인지를 보니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운암면 행복보장협의체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육가공업체 서정, 김제시에 돼지갈비 등 1500kg 기탁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주)서정(대표 이관규)은 18일 관내 경로당 및 저소득층에 전달하며 돼지갈비와 돼지등뼈 500박스(1,500kg)를 김제시(시장 박준배)에 지정 기탁했다.

(주)서정은 2002년에 설립한 육가공업체로 황산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마다 명절이면 저소득층의 어려운 이웃에게 돼지갈비를 후원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였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탁 물품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을 통해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되었다. /김제=곽도태 기자

N.S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